

특허청 직원의 한마음을 담은 “교훈석” 제막 행사

특허청은 ‘지식재산강국의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교훈을 담은 교훈석을 제작하고, 지난 2월 1일 11시30분에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교훈석 제막 행사를 가졌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신축·이전 20주년을 맞아 건립한 교훈석은 가로 3.4m 높이 2m 크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교훈은 특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결정했고, 특허청 직원 1,625명의 이름으로 건립했다.

홍만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연수원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신축·이전한지 20돌이 되는 날에 교훈석 제막식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연수원이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대한 특허·브랜드 지원 대폭 확대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지자체의 특허·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70여 개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원에 63억 원을 투입한다.

2010년도와 비교할 때 사업비(2010년 26.5억)는 138% 증가한 것이고, 참여 지자체 수는(2010년 52개) 31%가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전통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지역 R&D 전략수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국내 특허, 세계 최단기간에 100만호 등록 달성

국내 특허등록 누적건수가 세계에서 최단기간인 62년만에 100만건을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는 1948년 우리나라에서 유화염료제조법이 최초로 특허등록된 이래 62년 만에 거둔 것으로써, 특허등록 100만건을 달성하기까지 75년이 소요된 미국이나 97년이 소요된 일본보다도 앞선 기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특허등록 100만호를 달성한 국가이자, 20세기 이후에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특허등록 100만건을 경험한 국가가 되었다.

* 우리나라보다 특허등록 100만건을 먼저 달성한 국가는 미국·일본·캐나다 3개국이나 이들 국가는 19세기 이전부터 특허제도를 시행해 왔다.

600개 알짜배기 특허 사업화 지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휴면특허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가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중 우수 특허 600개를 선별하여 사업화를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11년에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지원대상별로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심사기간 1달로 단축

특허청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유럽도 디자인의 심사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도 무심사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기간단축을 시킬 예정이다.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에는 출원 후 1.7개월이 소요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약 9개월 빠른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식재산 교육 열기 확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에게 지식재산권을 교육하는 IP리더과정에 모집 정원의 2배 이상이 신청하면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IP리더'란 중소기업내 R&D 분야 연구원으로서 다른 연구원들에게 지식재산권 지식을 전파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특허청은 2015년까지 총 5,000명의 IP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각 기수별 120명씩 5기수 운영을 통해 총 600명을 양성 중에 있다.